

원자력홍보사업의 오늘과 내일



“
한국전력공사 울진원자력본부는
지난 6월 16일 전시관 휴게실에서
홍주보 본부장을 비롯, 유무선 건설소장,
장학중 울진군 부군수, 전인식 울진군 군의원,
엄주호 · 임동술 · 주진용 지역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자력홍보사업의 오늘과
내일」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

□ 討論(가나다順)

김종률	영남일보기자
남문열	울진군청 기획실장
남종열	울진군 북면장
박광석	KBS 울진중계소장
엄주호	삼척군 원전건설반대추진위원회 위원장
오흥국	아주공대교수
임동술	울진군 북면 생존권대책위원회 위원장
장학중	울진군 부군수
전광순	울진군 울진읍장
전완철	울진군 죽변면장
전인식	울진군 군의원
주진용	울진군 죽변면 원전대책위원회 위원장
홍주보	한전 울진원자력본부장
유무선	한전 울진원자력본부 건설소장

□ 司會

임근택	한전 울진원자력본부 홍보기술과장
□ 때 :	1992년 6월 16일
□ 곳 :	한전 울진원자력본부 전시관 휴게실

• 사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공사 울진원자력본부 홍보기술과장 임근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원자력홍보사업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85년 11월14일 개관한 우리 울진원자력전시관은 개관 6년6개월만인 지난 5월25일 오후 4시2분에 드디어 관람객 150만명 돌파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리 울진원자력본부가 이 토론회를 마련하게 된 목적은 전시관 관람객 150만명 돌파를 계기로 다양한 원자력사업 이해관계자들간의 토론을 통해 각 계층의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원자력홍보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원자력사업 이해관계자들간에 대화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바라며 토론회에 앞서 울진원자력본부장의 인사말을 듣겠습니다.

• 홍주보 인간관계에서 만남이란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이 됩니다.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원자력사업의 경우, 이해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자의 의견을 표명하고 진지한 토론을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내일의 원자력사업과 울진지역의 발전에 밀거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세계의 정상들과 환경보호주의자들이 모여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지구의 환경문제에 대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는 환경오염을 수반하지 않는 미래의 에너지체계에 대한 문제가 주된 의제의 하나로 채택되어 심각하게 토론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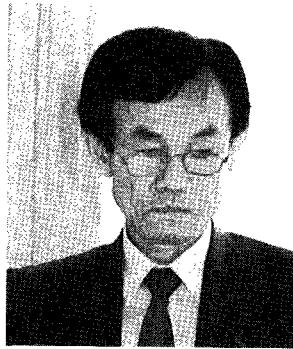
한편 현재의 우리나라 전력수급의 현황은 지난 수년간 계속되어온 급격한 전력수요증가에 따라 하절기인 7, 8월중에는 기준예비율 15%를 훨씬 밀도는 약 2%까지 예비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심각한 전력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우리나라 전력공급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이해를 돋고, 원자력사업에 대한 우리 모두의 입장을 표명하여 발전적인 의견을 개진하고자 오늘 이 토론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분들로 공사다방하신 가운데도 오늘 토론회의 필요성을 동감하고 참석하였습니다. 비록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해 못내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여러분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 실현가능한 부분들은 적극 검토하여 홍보사업에 반영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원자력사업과 지역의 현안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종률氏



유인물에 의한 홍보보다는 지역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적극적인 홍보가 되어야 하고, 지역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은 가능하면 지원해야 하고, 울진원자력발전소에 지역출신을 더욱 많이 채용해야 합니다.



남
문
열
氏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피상적이고 일방적인 홍보방법에서 탈피해, 관계기관과 언론이 협력하여 원전측과 지역주민들 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홍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
종
열
氏

정부와 한전측에서 아무리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지금과 같은 홍보활동을 계속한다고 해도 지역주민들을 생존권과 직결된 사항이라 홍보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의식과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신뢰성 있는 원전정책의 추진을

• **엄주호** 작년에 울진 1, 2호기가 세계의 발전소상을 수상했다는데,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울진원전의 경우 고장이 자주 발생하여 세계 제일의 발전소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울진원전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홍주보** 세계의 발전소상을 수상하는 기준은 해당 원자력발전소가 국내기 술산업에 얼마나 기여했으며, 원전의 운영을 얼마나 건실하게 했는지 등의 종합적인 기준에 의해 세계 유수의 원자력전문잡지인 Power誌에서 약 6개월간의 심사후 수상하게 됩니다. 울진 1, 2호기의 경우 작년에 발생한 고장은 터빈발전기계통의 고장과 급수계통의 고장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고장은 즉시 보수되어 발전소의 재가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 **임동술** 먼저 이렇게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신 울진원자력본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울진군 북면 지역주민의 경우 다른 지역과는 달리 울진원전에 인접하여 발전소 시설물을 항상 바라보며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늘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진 1, 2호기가 건설될 당시만 해도 북면 지역주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여론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울진 3, 4호기가 건설되면서 북면 지역주민들 사이에는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원전의 운영과 홍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 할 때, 운영보다는 홍보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 북면지역이 타지역보다 더 많은 우대와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로 북면지역의 생활급수와 농업용수는 발전소 취수댐의 건설로 인하여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울진원자력본부측에서 많은 장비를 지원해 임시조치를 취해 주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에 의한 지원금액이 부족한 관계로 북면지역에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원금액의 증액 등으로 이를 해결해 주는 것도 북면주민들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전의 안전성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비전문가라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원전운영자들의 신뢰성 있는 정책추진만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북면 지역주민들도 경제적, 정신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주진용** 선진국에 비해 기술이 뒤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울진 3, 4호기를 국내기술진이 건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일본의 경우 각 원전과 유선설비를 갖춘 안전센터가 민간차원에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 유무선 먼저 영광 3, 4호기 건설의 경우 설계(기기제작)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한국중공업주식회사), 외국회사의 3자 공동책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기술진과 외국의 기술진이 한자리에 모여 설계하고 우리의 부족한 기술과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이 되어 있어, 영광 3, 4호기가 준공되는 1995년에는 기술자립수준 95%를 달성하게 됩니다. 울진 3, 4호기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가 각각 설계와 기기제작에 주계약자로 선정이 되었지만, 영광 3, 4호기에서 미처 취득치 못한 신기술 등을 지원받기 위해 외국의 선진기술이 참여하게 됩니다.

즉 영광 3, 4호기의 경우 외국기술인력의 참여정도는 약 110만Man-Hr이지만, 울진 3, 4호기는 영광 3, 4호기에서 습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기술인력의 지원이 약 71만Man-Hr 정도로 감소합니다. 이와 같이 울진 3, 4호기의 건설에 있어서는 외국의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외국의 기술진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참여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부족한 기술을 보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기기제작의 경우에도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의 기술로 제작할 수 없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울진 3, 4호기의 안전성문제는 신기술이 많이 도입되어 안전해진 영광 3, 4호기보다 더욱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홍주보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일상생활용품을 구입할 때에 UL 등 외국의 기준에 만족하는 제품이라면 좋은 제품으로 생각하는 아이러니컬한 경향이 있습니다만, 우리 원전의 설계, 제작 등에 적용되는 기준은 미국기계학회의 기준(ASME CODE)으로서 영광 3, 4호기의 완공시점인 1995년도에는 이러한 미국기계학회의 기준을 만족하는 원전의 설계, 제작 등의 국산화율은 95%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日本의 경우 안전센터가 민간차원에서 유선설비에 의해 관계기관과 연결되어 원전의 안전성을 감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유선설비에 의해 감시되는 것이 발전소 운영상태의 어떤 것인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의 안전성에 관한 감시기관으로는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있는데, 이곳의 관계전문가들이 원전의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하여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123전화」를 통하여 우리나라 전체 원자력발전소의 일반적인 현황을 알 수 있으며, 우리 울진원자력전시관에는 서울, 광주 등의 원거리 4개지점과 발전소주변 8개지점의 환경방사선량률을 표시하는 온라인설비가 설치되어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자력홍보 더 강화돼야

홍주보
氏



울진원자력발전소의 문제는日本人이나 미국인의 문제
가 아닌 울진군민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바로 원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형성의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박광석
氏



대체에너지가 없는 상황에서 모두가 안된다면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모아 반대급부를 총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정부와 한전은 그 지역의 교통편의, 학교와 병원의 설립등 비전을 제시하여….



엄
주
호
氏

한국전력공사측에서 원자력에 대한 홍보에 주안점을 두지 않는 것은 혹시 있을지도 모를 국내원전의 사고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합니다.

• 엄주호 삼척군 역시 원전건설후보지 중의 한곳인데 대다수의 삼척군민들은 원전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민들이 「왜 삼척군이 원전 건설후보지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정부에 질의서를 보낸 적이 있는데, 정부의 답변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즉 삼척군이 인구밀집지역이 아닌 격리되어 있는 지역이라 원전건설후보지로 선정됐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전주변에서 무너아, 대두아, 기형동물 등이 발생됐다는 보도가 여러번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원전과 관계가 없다면, 즉 원전으로부터 나오는 방사선량이 연간 5밀리렘 이하이고 자연으로부터 나오는 방사선량이 240밀리렘이나 된다는 데에도 불구하고 원전주변에서 기형동물발생 운운하는 것은 한국전력공사측에서 방사선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데 그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삼척군민들은 원자력발전소가 삼척에 건설될 경우 방사선으로 인한 불안감 뿐만 아니라 지역동산물판매에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더 큰 불안감에 싸여 있습니다.

또한 미국 TMI원전의 사고는 돈을 많이 들여 지은 발전소였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없었고 소련의 체르노빌원전은 돈이 없어서 수많은 인명피해를 냈다고 하는데, 한국전력공사측에서 원자력에 대한 홍보에 주안점을 두지 않는 것은 혹시 있을지도 모를 국내원전의 사고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과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홍주보 먼저 원전건설후보지 선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왜 서울에 건설하지 않고 삼척에 건설하느냐」와 같은 감성적인 차원이 아닌 여러가지 과학적, 기술적 요건을 만족하는 곳에 발전소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 중 한가지 조건으로 경제성 있는 원전의 설비용량은 약 60~100만 kW(전기출력) 규모를 갖게 되는데, 이런 발전소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울진 1, 2호기의 경우 초당 약 124톤)의 물이 필요하게 됩니다. 남한에서 유량이 가장 많은 한강의 경우 갈수기때 초당 약 80톤 정도의 물밖에 흐르지 않기 때문에 경제성 있는 원전을 건설하기에는 부적합한 곳입니다. 또한 우리 회사의 경제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전력사업도 공공 기업활동이기 때문에 발전소를 건설함으로서 발생되는 부지비용 및 이주 대책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땅값이 비싸고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보다는 과학적, 기술적 요건 등을 만족하면서도 위와 같은 고정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곳에 건설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용량 화력발전소 및 원자력 발전소가 주로 해안에 위치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기형송아지, 대두아, 무뇌아출산 등의 보도로 인해 일반국민들은 그 원인이 원전에 있다고들 생각하시는는데, 이런 것들은 곧 전문기관의 조사에 의해 日本보기에 의한 아카바네병 등 환경, 유전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명됐고, 저희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전문용역기관을 통해 원전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전의 운영으로 인해 지역주민에

끼치는 영향이 없음을 실증했습니다. 물론 역학조사가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면 그 결과의 신뢰성은 더욱 높아지겠지만 일련의 역학조사들은 원전의 안전성을 입증하는데 충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의 문제에 있어서 국민학생의 문제는 국민학교에서, 경찰의 문제는 경찰서에서, 정치의 문제는 정치가에게서 그 해답을 구하듯이 원자력의 문제는 주민들 스스로 원자력전시관을 방문하여 직접 보고, 듣고, 의문점은 질문하여 해소하는 주민들 「스스로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울진원자력발전소의 문제는 日本人이나 미국인의 문제가 아닌 울진군민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바로 원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형성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문제해결의 자세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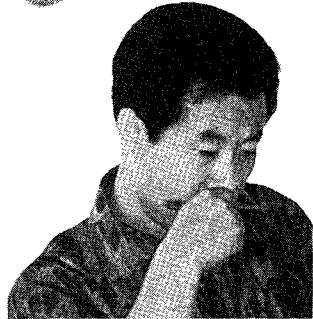
• **유무선** 원자력홍보라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원전의 필요성, 안전성 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도 그 후에 다시 만나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 이유를 곰곰히 생각해보니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즉 원자력하면 원자폭탄이라고 생각하여 원자력을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하듯이 언론매체에서 「원전주변지역 기형송아지 출생」이라고 보도하면 일반국민들은 기왕의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그 원인이 원자력발전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유전적, 환경적인 요인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원전주변지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원자력발전소, 한국전력공사 관련부서, 정부 등에서 원자력발전의 바른 이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반국민들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 단지 부정적인 측면만을 받아들이고 있어 홍보활동은 더더욱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보다 효과적이고 건설적인 홍보방향에 대한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 **김종율** 최근 울진군민들의 원전에 대한 시각이 나쁜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홍보가 되기 위해서는 한전직원과 울진군민들과의 공고한 유대가 필요하고, 건설이 시작되기 전부터 지역주민들과 정부간의 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인물에 의한 홍보보다는 지역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적극적인 홍보가 되어야 하고,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가능하면 지원해야 하며, 울진원자력발전소에 지역출신을 더욱 많이 채용해야 합니다.

• **남문열** 지금까지의 홍보는 일방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피상적이고 일방적인 홍보방법에서 탈피해 관계기관과 언론이 협력하여 원전측과 지역주민들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홍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오
홍
국
氏



지역에 원전 또는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유치하고자 할 때 지역개발자금으로 충분히 보상해 주어야 하고, 주변지역지원금으로 종합병원, 공업고등학교, 전문대학 복지시설 등을 건설해 주어야 합니다.



임동술
氏

원전운영자들의 신뢰성 있는 정체추진만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북면주민들도 경제적, 정신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장학중** 한전측에서는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하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늘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뢰받을 수 있는 홍보가 되기 위해서는 제3의 용역단체에서 원전홍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인근지역의 치리적인 여건 등을 고려, 여름철에 해수욕장을 이용하여 홍보를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말로 하는 소극적인 홍보를 지양하고 좀더 적극적인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울진은 이미 임시폐기물처리장을 보유한 지역이므로 정부와 한전측은 울진지역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증대와 학교신설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 **남종열** 정부와 한전측에서 아무리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지금과 같은 홍보활동을 계속 한다고 해도 지역주민들은 생존권과 직결된 사항이라 홍보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의식과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고, 홍보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제3의 매체를 통해 주민의 생존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의 홍보가 필요하며, 지역주민의 생존차원에서의 이해를 구하고, 가가호호에 방사선계측시설과 경보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이 지정한 업체를 통하여 원전의 안전성을 측정함으로써 측정의 가치와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시행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지역발전을 위한 전문대학, 병원, 교량시설 등의 건설도 현실로 나타나야 한다고 봅니다.
- **주진용** 「환경방사선량률 표시판」은 지역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 두어야 홍보의 효과가 있을텐데, 전시관 안에만 설치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은 각 동네에 하나씩 설치하기를 원하며, 이것이 곤란하면 각 면에 하나씩이라도 설치를 해주어야 홍보효과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지역주민채용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한전에서 5km 반경내 지역출신들에게 공개채용시 10% 가점의 특혜를 주고 있다고 하나, 가까운 日本은 원전종사자의 70% 정도를 원전지역주민들로 채용하고 학력도 고졸 이상 정도의 학력만 지니면 1~2년간의 교육을 필한 후 기능공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 **전광순** 울진지역주민들이 원전건설 및 방사성폐기물처리장건설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후손에까지 미칠 후환을 두려워 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이 다 했을 때 사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의 결과에 대한 우려이며, 정부와 한전에 대한 불신이라고 봅니다. 원전건설 및 발전내용에 대하여 좀 더 성의와 진실성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부분적인 공개를 완전공개로 변화시켜 불신의 벽을 무너뜨려야 하며, 고장이나 사고에 관한 기술적인 정보를 과기처에서 자세히 알듯이 지역주민들에게도 분명히 알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전에 근무하는 직원과 지역민들간 유대가 돈독치 못함으로써 생기는 불신풍조와 불편한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편견과 편협, 편애를

버리고 직위고하를 초월하여 서로가 함께 어울리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청년, 장년, 노인 등 각 계층에 걸맞는 체육시설, 복지시설을 건설하고, 발전소 사택의 넓은 공간과 체육시설 및 복지시설을 지금보다 더욱 개방시켜 함께 사용한다면 서로의 공감대는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밝고 활기찬 지역문화와 원자력문화가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전인식 울진 3, 4호기는 영광 3, 4호기의 건설설계기준과 같고 어려운 부분에만 외국자문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정말 그러한 수준까지 올라 왔는지 궁금합니다.

• 업주호 현대는 세계가 일일생활권입니다. 한전에서 발생된 작고 큰 일들에 대하여 언론을 통하여 원인, 과정, 결과, 해명 등을 소상하게 알려야 합니다. 참고로 체르노빌 사고발생시 진화작업을 한 사실은 한전과 관련됨에도 불구하고 묵묵무언이었고, 언론에서 전력사업, 원전사업에 대한 예리한 비판을 해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노임은 높게 책정,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위험부담을 안고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일반인들도 간단한 출입절차를 통해 현장견학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전완철 한전의 홍보방법은 그 대상이 특정인에게 국한되어 지역기관장과 유지 아니면 외부 주요인사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현장의 핵심부분까지 성의를 다하여 안내를 하지만 지역주민, 소외계층인 장애자들, 노약자들, 학생들에게는 많은 견학기회가 제공되지 못하는데 이것은 역홍보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전 원전내의 방파제에서 낚시대회를 개최했는데 무척 좋은 반응들이었습니다. 「밖에서 듣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질문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영광원자력발전소 배수과정에서 해초의 서식을 막기 위해 염산을 투입한다는데, 10~20년 후면 바다오염과 생태계파손까지 초래할 것을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효과적이고 건설적인 홍보방향

• 오흥국 제가 울진원전에 대해 의도적으로 무관심을 가진 것은 지역출신 대학교수가 특히 기계공학을 전공한 교수가 고향땅에 있는 원전에 출입을 자주한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에게 괜히 오해의 벽을 쌓는 기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유관심이지만 무관심을 본의 아니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8월15일은 울진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및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날입니다. 작년에 고향에 왔을 때 거리와 운동장에는 원전반대 현수막과 스티커를 붙여 놓았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시위로 인한 재산 및 인명

유
무
선
氏



울진 3, 4호기의 건설에 있어서는 외국의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외국의 기술진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참여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부족한 기술을 보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장학중
氏

신뢰받을 수 있는 홍보가 되기 위해서는 제3의 용역 단체에서 원전홍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인근지역의 지리적인 요건 등을 고려, 여름철에 해수욕장을 이용하여 홍보를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전광순
氏

지금까지의 부분적인 공개를 완전공개로 변화시켜 불신의 벽을 무너뜨려야 하며, 고장이나 사고에 대한 기술적인 정보를 과기처에서 자세히 알듯이 지역주민들에게도 분명히 알려야 할 것입니다.

피해가 있었고, 총선과 맞물려 손바닥 같은 동네에서 선후배간의 갈등, 분열, 적대의식 등으로 지역분위기는 살벌하기까지하여 이때부터 원전에 대한 무관심이 유관심으로 바꾸어졌고, 고향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서 앞장을 서야겠다는 생각이 있던 차, 친분이 있던 울진신문사장께서 원전과 지역에 관한 글을 요청했기에 승낙했던 것이 인연이 되어 오늘의 이러한 토론의 장에서 토론자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원전은 핵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약하게 시작되었으나 우리나라에는 원자력에너지가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핵은 위험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한전측에서는 반대급부를 무시하고 들어와서는 안되며, 반대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들어와야 될 것입니다. 원자력시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군민의 투표 또는 군의회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반대급부는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사실 저 자신도 원전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처참한 역사가 예상되고 방사선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민이 싫다고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반대급부논리에 대한 비유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 4명이 고기를 신나게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넣어야 할 항아리를 잊어버리고 집에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 4명 중에서 1명이 항아리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 항아리를 가지고 오게 하려면 반대급부를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선정된 한사람은 「왜 나를 보낼까」, 「바보스러워 일까」, 「힘이 없어서 일까」라는 컴플렉스가 작용합니다. 즉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지역에 원전 또는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유치하고자 할 때 지역개발자금으로 충분히 보상해 주어야 하고, 주변지역지원금으로 종합병원, 공업고등학교, 전문대학, 복지시설 등을 건설해 주어야 합니다. 日本의 원전정책이 성공한 것은 바로 원전 인근지역에 이런 숙원사업을 수용하여 해결해 줌으로써 지역개발자금 없이도 무난히 방사성폐기물영구저장소를 유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후보지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한전은 지역개발측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日本 원전의 경우는 톱 리더가 지역출신이어서 인간관계의 컴플렉스해소와 원전건설 및 발전운영관리면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 박광석 대체에너지가 없는 상황에서 모두가 안된다면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모아 반대급부를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정부와 한전은 그 지역의 교통편의, 학교와 병원설립의 비전을 제시하여 지역주민들이 원자력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 임동술 오흥국 교수 말에 동감하며 지역이 잘 살면 반대가 적어집니다. 한전측에서는 지역을 잘 살게 만드는 것이 반대를 줄이는 것이라 생각하고 모든 일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 홍주보 홍보는 궁합이 맞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토론회는 궁합을 맞

추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울진군 총수의 중 75%가 정부예산이고 25%가 지방예산으로, 저희 공사가 매년 울진군에 기부하는 지역협력기금 10억여원은 울진군 지방세의 37%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원전에서 지방세에 기여하는 비중도 상당히 큽니다. 국가중요시설에서 낚시대회를 개최한 것은 우리나라 14년 원전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라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대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고용 증대문제는 한전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개채용의 경우 지역출신에게 10% 가점의 특혜를 주는데, 이것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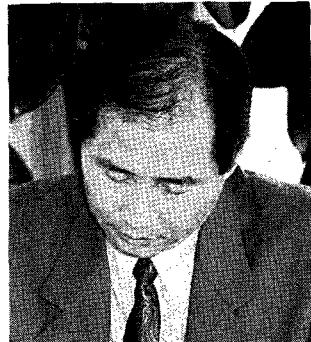
그리고 전기요금을 지역주민들에게 감액 내지는 징수하지 않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닌가 봅니다. 울진군 고객에게 전기요금을 다 받는다 해도 울진지점 운영은 적자입니다. 원자력홍보업무를 제3의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원자력문화재단」과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서 그 일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방사성 폐기물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방사능은 자연 소멸되고, 원전수명은 30~50년이지만 수명이 다한 후 원전지역에는 그린필드가 형성되고 신도시 하나가 탄생됩니다. 또 오늘도 내일도 그곳에는 관련직원들이 자유롭고 평안한 근무를 염연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한전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재훈련 만으로도 북면장께서 이야기하신 기구당 1대씩의 방사선계측기설치 이상의 효과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가동중원전의 출입절차는 약 1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정식으로 출입요청을 한 단체는 지금도 자유롭게 현장견학안내를 받았으며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산업시찰은 1년에 2회 정도 한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르노빌사고시 신속히 보도하지 않은 것은 소련 공보실을 경유한 후 지상 또는 매스컴을 통해 일람에 따라 보도가 늦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염산을 사용하여 바다가 오염이 되고 면 훗날 생태계마저 파괴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근거없는 말이며, 원자력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것으로 염산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발언해 주신 많은 내용들은 매우 건설적인 것으로 저희가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본사와 협의할 것은 협의하여 저희 홍보사업이 좋은 결실을 맺고 원자력발전소가 지역과 함께 하는 발전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이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사회 오늘 토론회는 울진 3, 4호기 기공식 직후에 개최되는 것이라 더욱 뜻깊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기회가 닿는대로 울진지역의 여러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완
철
氏



한전의 홍보방법은 그 대상이 특정인에게 국한되어 지역기관장과 유지 아니면 외부 주요인사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협장의 핵심부분까지 성의를 다하여 안내를 하지만….

주
진
용
氏



선진국에 비해 기술이 뒤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울진 3, 4호기를 국내기술진이 건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